

[ 사회 ]

■ 한국 첫 우주인 선발 광주출신 이소연씨 스토리



“여성 할당으로 뽑지 말라” 당찬 요구

한국 첫 우주인 후보로 선정된 이소연(28·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씨의 느낌은 한 마디로 감동과 기쁨 그것이었다. 한국 첫 우주인 후보로 선발된 뒤 잠자리에 든 시각이 새벽 3시. 다음날 7시 방송 인터뷰를 시작하기까지 잠을 잔 시간은 4시간 남짓이다.

광주과학고 앞에는 26일 ‘광주과학고 11기 이소연, 한국 첫 우주인 후보 선정을 축하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이날 등교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최초 우주인 후보가 된 이소연씨가 우리 선배라니 놀랍다”며 자랑스러워 했다.



이소연씨(오른쪽)의 어릴 때 모습. 동생 진승(여·현재 26)이의 생일잔치 때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찍은 것이다. 가운데는 남동생 기백(·22).

“꿈 많고 도전정신 강했던 소녀”  
궁금한 것 못참고 항상 물어봐  
태권도·수영 등 체력단련 꾸준

이씨는 그러나 러시아 가가린 우주비행사후원센터에서 우주유형 훈련을 하고 소우즈 우주선에 탑승, 우주 정거장으로 날아가는데 한 발 더 다가갔다는 생각을 하면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고 한다. 영원이 불가능해 보였던, 어렸을 때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이 자신에게 실현될지 모른다는, 유리 가가린이 “지구엔 푸른 별이 있다”고 한 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씨가 우주인 선발에 나설 때부터 수차례 격려 메일을 보냈던 정경도(55·화학) 교사는

“‘우리’ 소연이가 우주인 선발대회에 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상당히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굳이 여성 할당으로 뽑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뽑아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한다.

정 교사는 이와 관련 “소연이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항상 물어보는 호기심 많

은 아이였다”며 “운동도 잘하고 승부욕과 도전정신이 강했다. 전공도 기계 공학이라는 점 등을 들어 누구보다 우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특히 “소연이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즐기면서 하는 성격”이라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 3학년까지 태권도를 계속했고 과학기술원에서도 매일 수영과 달리기로 체력을 단련했기 때문에 충분히 혹독한 우주

훈련을 견뎌낼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정금순(55)씨는 “소연이는 어렸을 때부터 실험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면서 “꿈을 향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김치와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러시아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할지 가장 큰 걱정”이라며 웃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 정시 3.09 대 1  
광주교대는 2.08 대 1

■전남대 광주캠퍼스 일반전형 경쟁률

모집단위	가군	나군
일반학부	4.63	2.92
생명과학기술학부	2.79	2.83
간호학과	3.73	2.61
경영학부	3.32	2.54
경제학부	5.12	3.27
건축학부	3.40	2.04
전자컴퓨터공학부	2.90	2.21
식품생명공학부	12.86	6.08
동물자원학부	14.78	8.50
농업경제학과	8.13	3.77
법학계열	2.69	2.25
국어교육과	2.56	1.50
영어교육과	3.57	2.30
수학교육과		1.94
정치외교학과		2.92
신문방송학과		2.65
생활과학계열	3.71	2.74
약학부	4.72	4.28
국어국문학과	3.27	2.38
영어영문학과	3.43	1.85
독어독문학과	5.17	2.94
의예과	3.04	3.12
수의예과	2.54	3.35
음향학과 성악전공		2.48
음악학과 작곡전공		1.70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5.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군 일반전형에서는 사회체육학과가 8.95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나군에서는 석야과가 10.96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가·나·가나 군에 속하는 대학들이 26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남대는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서울지역 주요 대학은 예·체능 계열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의 경우 총 3천635명 모집에 1만2천250명이 지원해 3.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캠퍼스는 3.32대 1, 여수캠퍼스는 2.1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광주캠퍼스의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가군의 경우 동물자원학부가 14.78대 1로 가장 높았고, 식품생명공학부 12.86대 1, 산림자원경영학부 10.22대 1 등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나군 일반전형에서도 동물자원학부가 8.5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남대는 원서접수 마감일인 26일 오전 10시 이후에 전체 지원자의 43.

7%인 4천921명이 원서를 접수해 막판 눈치작전이 극심했던 것으로 풀이했다.

광주교육대학은 498명 모집에 1천37명이 지원해 2.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전형은 2.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별전형은 국가유공자자손 3.2대 1, 농·어촌학생 4.16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이날 오후 1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중앙대 서울캠퍼스는 6.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연극영화화학과 연극(연기) 분야가 10명 모집에 280명이 몰려 2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균관대는 3.4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연기예술학전공이 18.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강대는 6.1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인문계와 사회과학계가 각각 4.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남자 행세하며 동거녀 돈 뜯어  
고의 교통사고 냈다 부친 참변

검찰 발표 올 황당 사건

대검찰청은 26일 을 한해 수사했던 극적인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남자 행세를 하며 동거녀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여·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웃지 못할 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싶었다”는 말로 성관계를 피하며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채모(여)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차를 몰고 여관으로 가자고 하자 음주 상태인데도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주점 밖에서는 채씨와 공모한 남자 2명이 차를 바꾸는 척하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뜯어냈다.

김모 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아버지와 함께 차를 몰고 가다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는 데 성공했지만,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졌다. 김씨는 어머니와 동생, 친구 등 3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억2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부농이었지만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자식이 없었다. 무속인 B씨는 자신의 수양딸이 이혼녀인데 아들을 낳았다며 이른바 ‘씨받이’를 제안했다. A씨는 B씨에게 4천700만 원을 주고 수양딸 C씨와 배란일에 맞춰 성관계를 가졌지만, C씨는 이미 애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배가 불러오던 C씨는 생부가 탄로날까봐 나태 수술을 받았고, A씨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자신이 계속 무정자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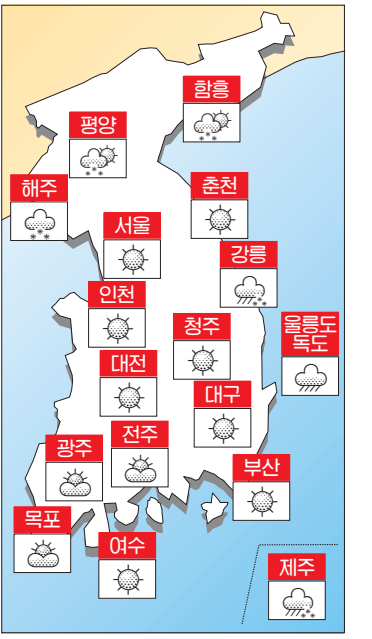
/연합뉴스

찬 구름 몰려드는 저녁 12월 27일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음 11월 8일) ◇전국날씨

지역	구름량	기온
서울	구름많음	2~7℃
부산	구름많음	3~7℃
대구	구름조금	7~10℃
대전	구름조금	3~8℃
전주	구름많음	-2~9℃
광주	구름조금	0~8℃
제주	구름조금	0~8℃
충청	구름조금	2~10℃
강원	구름많음	-1~8℃
경북	구름조금	2~8℃
경남	구름조금	1~9℃
충남	구름조금	2~8℃
충북	구름조금	2~8℃
전북	구름조금	-2~8℃
전남	구름조금	1~7℃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6:53 썰물 < 12:05  
여수 밀물 < 01:44 썰물 < 07:37

▲해돋이 07:39 ▲해질 17:27 ▲달돋음 12:00 ▲달짐 11:1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목)	29(금)	30(토)	31(일)	1/1(월)	2(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2	-3/4	-2/7	-1/8	0/9	0/9

전남 일부 내일 강풍 동반 눈

30일까지 반짝 추위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 잡은 상층 한기(寒氣)가 일시적으로 남하,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오후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28일에는 영하권 분포를 보일 것이다”고 밝혔다.

28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구름·곡성·순천 영하 4도, 담양·장성·장흥 영하 3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24시간 인적설이 5cm 이상)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고, 곳에 따라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예보했다.

추위는 30일부터 서서히 풀려 평년 기온(영하 2도~영상 6.8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내년 1월1일께 다시 영상권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한편 성탄절인 지난 25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17도까지 치솟으며, 광주기상청 관측(1939년)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 1987년 성탄절에도 낮 기온이 17도를 기록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베 풀면 서로에게 은인된다”

법전 스님 신년 범위

불교 조계종 종정 법전(法傳·사진) 스님은 26일 발표한 신년 범위에서 “탐욕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비우면 현실세계를 바로 알게 되며, 싸우게 되면 모두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고, 베 풀고 양보하면 모두가 서로에게 은인이 된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마음을 비우고 베 풀 수 있다. 먼 이 세상 모두가 나의 보배가 됨을 알게 된다”고 덧붙였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입소용' (Insosong) featuring a man and various services like '75% energy cost reduction' and 'free maintenance'.

Advertisement for '인터넷 가맹점 무료증정!' (Internet Franchise Free Gift!) featuring various electronics and services.